

1.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제8주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8월 성찬보좌는 김삼순 권사입니다.

2. 연합속회: 8월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일정: 8월17일 오전 11시 (토) 장소: Lakeshore, CA 93634 (Huntington Lake 주변)

3. 엠마오가는길 영성훈련 (여자기수): KWE 35기가 8월12일(월)-15일(목)까지 Redwood Glen Conference Center에서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봉사자들도 신청해주세요. 참가비 \$250

4. 2019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가 레이크타호 장로교 수양관에서 8월19일(월)-22일(목)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이 마감입니다.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강사: 이덕주 교수, 정희수 감독/ 회비는 \$200입니다. (교회에서 50%지원)

5. 식탁교제: 오늘은 찬양1속입니다. 다음주는 전체 팔락입니다.

6. Eco-Garden : 매월 첫번째 토요일 오전 8시에 방문합니다. (9월7일)- 에코가든의 책임자인 Nancy 가 8월20일에 세인트아그네스 병원에서 심장수술이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오늘 에코가든 야채를 팝니다. 이번에는 자두와 고추입니다.

7. 새벽예배안내: 엠마오가는 길, 기간에 새벽예배는 쉽니다. (8월12일-15일까지)

8. Growing Young Cohort: 연회에서 진행하는 Growing Young Cohort에 저희 교회가 선택되었습니다. 10월에 1박2일로 새크라멘토에서 교육이 있고, 이전에 설문 조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목회자를 포함해 평신도들이 4명의 팀으로 교육을 받으며, 교육을 통해 교회에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교육받게됩니다.

교회 행사 일정 안내

8월12일-15일 : 엠마오가는길	9월5일: 북가주 실행위원회
8월19일-22일: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9월19일: 서킷모임
	9월21일: 북가주선교디너

한일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복잡한 뉴스로 장식한 내용을 보면 간단히 말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어서, 서로 무역을 하는데 제한을 두는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수출한 것들이 일본에게 무기가 되어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일본은 늘 우리조국 대한 민국과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기억하는 일본은 늘 우리를 침략했고, 2차세계대전이 있기전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불편한 나라입니다.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독일 나치가 유럽을 초토화 했던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아시아를 초토화 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일본과 국제경기를 할때, 우리는 특별히 한일전이라는 이름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축구경기는 그 열기와 관심이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꼭 이겨야합니다. 기억에는 진적도 있습니다. 어쩌나 분하던지,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일본 오사카를 여행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따라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사카 전철역은 서울의 지하철 2호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패스트트랙은 페인트 색깔부터 구조와 배경이 똑같습니다. 이때, 꽤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니 따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늘 일본을 유일하게 무시하는 민족으로서 앞뒤 안가리고 창의성 없이 따라한다는 느낌은 왠지 기분 좋지 않은 모양이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앞뒤안가리고 따라해서인지, 한국의 경제가 일본경제를 거의 따라 잡은듯합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관계의 냉각은 치고올라오는 한국의 기세를 꺾기 위해 일본이 벌인 모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사는 것을 일본이 싫어해서 그런것일까요? 비슷한 일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패권을 빼앗길 수 위기감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함께, 더불어 이런 말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이상적인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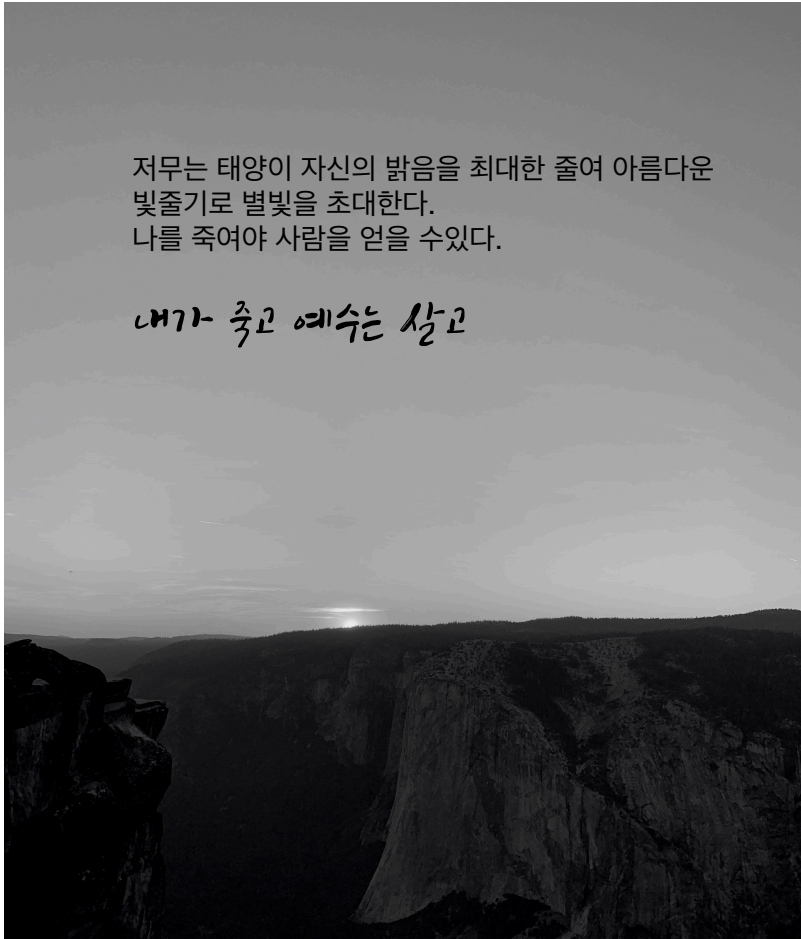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차별은 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들의 일을 해나가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2019년 교회포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마 5:13-16)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www.fkumc.net



저무는 태양이 자신의 밝음을 최대한 줄여 아름다운 빛줄기로 별빛을 초대한다. 나를 죽여야 사람을 얻을 수있다.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

FRESN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주일예배 Sunday Service	12:30 pm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Tel.559.299.0240 fkumc@fkumc.net	교회학교 Sunday School	12:30 p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06:00 am T-S
	중보기도회 Prayer meeting	11am Th
24-30호 2019년08월04일	트리니티성경공부 Trinity	10am Tu 4pm Sat

주일예배 Sunday Worship

성령강림후 8주 / 녹색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나눔과 기쁨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Movie Clip

찬송 Hymn /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환영 Welcome / 인도자

Message for Next generation / Dana Eads / Luke 12:13-21

성찬식 Holy Communion / 다같이

경배와 찬양 Prsie & worship

대표기도 Prayer / 김삼순 권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호세아 11:1-11

찬양 Praise / 찬양대

설교 Sermon / 김규현 목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절,5절)

❖ 봉헌 Hymn / 1장

교제및 환영 Welcome /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알림 과 나눔 Announcement

❖ 결단의 찬송 Closing Hymn / 주기도송

❖ 축도 Benediction /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 헌금은 예배실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예배위원 Worship Leader

예배위원은 예배전 30분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회중기도	성경봉독	애찬당번	애찬봉사
08월04일	김삼순 권사	인도자	찬양1속	찬양1속
08월11일	김형기 집사	인도자	전체팔락	전체팔락
08월18일	김혜진 집사	김형기 집사	사랑2속	사랑2속
08월25일	안광빈 집사	김혜진 집사	희망3속/말씀4속	희망3속/말씀4속
8월안내	임경희	8월 촛불/ 성찬	김삼순	

감사와 기도제목 나눔

Thanksgiving and sharing prayer concern

매주 헌금함에 감사와 기도제목을 넣어주시면 주보와 중보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합니다.

-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 교회학교와 교회일정을 위해
- Cal-Nevada Annual Conference와 감독 감리사들을 위해
- 장영심 집사 남편 베니토의 건강을 위해
- 총기사고 (텍사스 엘파소)희생자들을 위해
- 남은 여름 행사를 위해
- 남가주 주님의 교회 (파트너교회)/ 담임목사: 김낙인 목사
- 교회홈페이지 www.joonimchurch.com

지난주 봉헌과 통계 Offering and Statics



예배 Worship	주일	새벽	모임	합계
	32	7	0	39
헌금 Offering	일반헌금		특별헌금	합계
	\$487.00		-	\$487.00

이번달 속회현황 보고 Class meeting report



속	속장	인도자	모인곳	모일곳	인원	헌금	모인월
찬양 1	김삼순	윤문섭	윤문섭	-	7	\$70	7월
사랑 2	김현덕	장영심	김현덕	-	5	\$80	7월
희망 3	최미란	김규현	김규현	-	4	\$40	5월
말씀 4	이수경	이수경	이수경	-	4	\$40	5월
기쁨 5	김혜진	김규현	김혜진	-	4	\$40	6월

성경봉독 및 새벽예배

8월5일-8월10일

민수7-13장, 기쁨의 언덕